



“홀로그램 공연 즐기세요” 지난 28일 오후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홀로그램극장’ 개관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아이돌그룹 GOT7의 콘서트를 감상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3월1일 ‘홀로그램극장’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된 ‘미디어아트플랫폼’을 정식 개관한다. /최혜비기자 choi@kwangju.co.kr

## 해양자원 절반 보유...항만투자 겨우 5%

‘해양수산물’ 전남 몫을 찾자

### 열악한 전남 항만 인프라

우리나라 해양자원의 절반을 보유한 전남에 대한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이 가진 해안선과 그를 따라 형성된 항만, 해양영토이자 전진 거점인 섬, 자연유산인 갯벌을 비롯한 다양한 수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해 국가 발전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의 항만 인프라,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체계, 해양관광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오류를 짚고,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점검한다.

정부가 광주·전남에만 유독 강조하고 있는 ‘선수요 후투자’ 방침이 전남의 항만 인프라 추가 설치를 더디게 하고 있다. 부산·울산, 인천·경기를 중심으로 한 정부 인프라 투자로 인해 전남의 해양항만자원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의 상당부분이 사장되고, 결국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해양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실물이 된다는 것이다. 광양항과 목포항이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을 상대로 한 거점 무역

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기인하고 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항과 목포항의 항만물동량은 2억7743만, 2285만2000t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0%, 1.8% 상승하는데 그쳤다. 철강과 자동차 등 대표 수출품목의 저조한 실적이 이유라고 하지만, 충남 대산항(9.4%), 울산항(3.5%) 등의 선전에 밀린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전국 항만물동량 성장치인 2.7%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무려 4.4%가 감소한 222만4000TEU를 보인 반면, 인천은 전년도에서 12.6% 증가한 267만7000TEU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 신항 운영과 함께 중국, 베트남 수출입 물량을 가져간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광양항은 부산항, 인천항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광양항, 목포항 등 전남 무역항과 연안 항의 미래도 암울하다. 해수부가 신규 항만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부산·울산, 인천·경기 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

### 정부, 부산·울산·인천 집중 투자 전남엔 유독 ‘선수요 후투자’ 방침 중국·동남아 거점 무역항 역할 못해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 사장되고 한국 전체 항만 경쟁력 약화시켜

수부가 지난해 9월 29일 확정·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하면 2016~2020년까지 광양항과 목포항에 투입되는 항만인프라 투자는 각각 6347억원, 1725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투자 규모가 14조641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5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부산 4조9847억원을 시작으로, 울산 2조4329억원, 인천 1조6526억원, 평택·당진 1조1258억원 등 주요 무역항에는 1조원이 넘는 투자가 예정돼 있다. 광양항과 목포항이 지난해 기준 전국 항만물동량(15억190만t) 가운데 20.0%(3억29만2000t)를 책임지고 있으나, 그만큼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차별’은 항만 물동량 감소, 물류·유통 등 관련 산업 침체, 기업 이전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예상

한 2020년까지의 광양항 연평균 물동량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부산(4.0%), 울산(5.3%), 인천(2.0%) 등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구도다. 부산·울산·인천·경기 등에는 항만인프라인 도로, 철도, 배후부지, 관련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물류·선적비용을 낮춰주는 반면 광양항, 목포항 등은 수요를 전제로 시설을 보완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광양시는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단계 부두 개발·물류자동화시스템 구축(1조7000억원), 초대형 컨테이너선 입항을 대비한 수심 확보 등 수익 정비(1조 원) 등의 사업을 발굴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더 거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광양항 혁신 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건철 동신대 교수는 “수출거기인 우리나라에서 항만인프라를 얼마만큼 갖췄는지가 곧 지역경쟁력이며, 이를 분산해 세계 곳곳으로의 수출길을 여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기초”라며 “중국은 물론 아시아, 유럽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차별로 인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현재, 탄핵심판 첫 평의...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질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을 위해 28일 첫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

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

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날짜는 평의에서 결정된 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명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중요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 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연향뉴스

## ‘대박’ 여수해상케이블카 업체, 기부금 약속 ‘꼼수’



200억대 매출 올리고도 3% 기부 약속 안 지켜  
지역사회 거센 비난  
법원 “납부 약속 지켜라”  
업체 뒤통수 6억여원 공탁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부금 협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주)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법원도 최근 그동안 갖은 꼼수를 부리며 기부금 납부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에 대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주)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속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채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여수포마는 지난 2014년 여수오동도 앞 자산공원~돌산읍 돌산공원 1.5km 구간 임시 운행 허가를 앞두고 여수시와 ‘유료 입장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여수시는 업체가 약속한 약정을

근거로 임시운영 허가를 내렸고, 지난 2014년 12월 첫 운영을 시작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매년 수백만명이 찾는 ‘대박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업체는 운영 첫해인 2015년분 기부금 8억3379만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납부했지만, 전남도에서 정식 운행허가를 얻은 지난해 5월 말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태도가 돌변했다는 게 여수시의 설명이다.

실제 업체는 2015년 6월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1분기 기부금액조차 표시하지 않은 채 납부 의사를 밝혔으나, 같은 해 10월 갑자기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으로 기부금 납부를 대신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여수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교통난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하며 해상케이블카가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희생했는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여수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기부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꼼수는 전혀 아니며, 다만 기부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이견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법원 판결 이후 지난 24일 6억9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측 항소 등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완벽한 대응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임시운행을 시작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말까지(이용객 220여만 명) 첫째 매출액만 27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14년 임시 운영 당시 업체가 예상한 연간 탑승객 1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 역시 190여만명이 이르는 관광객이 탑승해 최소 2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친박집회’에 휘날리는 태극기  
“3·1절 태극기 들기 짚짚해요” ▶6면  
청년이 미래다  
남광주 범기차아시아장 청년상인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일보 65 since 1952 |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 K-클래식의 대표주자  
첼리스트 정명화 | 피아니스트 손열음 |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ticketmaru.co.kr/1588-0766) |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제작 WCN